

AIDS 상담실

“상상 에이즈 증후군”이 걱정 되십니까? (3)

*AIDS 감염 위험집단

1. 동성 및 양성 연애자
2. 상습마약 사용자
3. 공창 및 사창에 근무한 남녀
4. 혈우병으로 혈액체제를 받은 사람
5. 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 등

대부분의 국민이 느끼는 에이즈에 대한 염려증은 단편적인 지식에 의한 자기진단이 막연한 불안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에이즈 상담가운데 잠복기에 대한 논란으로 검사결과를 계속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즈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예방을 한다면 공연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에이즈 상담실 홍성대>

에이즈 상담 유형별 내용

질문 유형	답변 내용
에이즈 감염후 잠복기 기간?	감염후 증상 발현까지 (잠복기)는 수개월(6개월)부터 수년(5년)이상을 보며 감염자의 30%는 5년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에이즈의 전염력?	에이즈 환자가 일반접촉 및 치료 중 감염에는 아직 보고 된 것이 없으며 감염자의 오염된 주사침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에이즈에 감염되는 예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환자의 가벼운 포옹, 악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국내에서도 1987년 7월부터 모든 혈액에 대해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본다.

	<p>현재 항체 미형성기에 헌혈한 보균혈액(극소 수임 : 250만 pint 중 1개)은 불가항력적이거나 앞으로 헌혈 시 완벽한 문진제도 확립과 보다 예민한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보완해갈 예정이다.</p>
에이즈 치료는 가능한가?	<p>현재는 azidethymidine(AZT) 등 여러 약제가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완치의 약은 없는 상태이고 합병 되는 감염 질환 등을 예방하고 면역상태를 복구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p>
에이즈 예방책은?	<p>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혈액에 대해 에이즈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혈액제제는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되기 때문에 혈액에 의한 감염을 막고 있다.</p> <p>또한 지속적인 에이즈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등을 통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보며 한국 실정상 성 윤리 도덕이 서구에서와 같이 난잡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되지 않으나 요사이 과소비 풍조에 편승한 퇴폐적인 성행에 대해 절제와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고 있다.</p>
퇴폐이발소 이용 후 불안?	<p>접촉 후 3개월 후에 에이즈 검사 유도.</p>
성폭행 후 에이즈 감염 불안?	<p>성관계 모두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 검사 유도.</p>
해외 파견 근무중 현지 윤락녀와 관계?	<p>에이즈에 대한 전반적 설명후 검사 유도</p>
윤락녀와 관계 후 성병에 감염. 에이즈와 관계?	<p>성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만약 에이즈 보균자와 관계 시, 성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보다 감염력이 수십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교통사고 후 수혈 받았다.	<p>모든 혈액은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므로 안심해도 좋다. 확인 검사 유도.</p>